

STARCRRAFT

# 피에 담긴것

맷 번즈

BILZARD  
ENTERTAINMENT

뵙.

뵙.

뵙이이이익.

항구의 "버리지"가 눈을 떴다. 늘 그렇듯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손목에 심어 놓은 수신장치가 5 초 간격으로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다. 두목 이반의 호출이다.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다.

본능이 그를 사로잡고, 육체에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두 개의 아드레날린 분비선이 혈관에 자연산 전투 자극제를 주입했다. 폐가 부풀어 오르고, 산소를 품은 적혈구가 근육 조직으로 퍼져 나갔다. 그는 기상 의식을 시작했다.

밤을 보낸 곰팡이 핀 조종석에서 굴러 내려와 꼼지락거리며 더러운 강화복을 몸에 걸쳤다. 머리카락만큼 얇게 뽑아낸 신소재 강철 섬유로 만들어 칼을 막아낼 수 있는 옷이었다. 머리 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깜박거리며 그의 집을 비쳤다. 행성계 사이를 운항하던 중형 우주선이 남긴 잔해가 그의 집이었다. 그는 바닥 위에 이리저리 널부러진 전자 장비들을 뒤적이며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비상용 전투 식량을 찾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운이 없었다.

떠나야 한다는 충동이, 이반의 호출에 응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게 밀려왔지만, 의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우주선의 부식된 제어판을 향해 허둥지둥 달려가 열린 수납함 안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긴 고무줄 끝에 달린 조종사를 상징하는 황금색 날개 장식을 꺼내 들었다. 그 줄을 목에 걸자, 차갑고 강인한 금속이 가슴을 눌러 오는 익숙한 느낌에 마음이 놓였다.

버리지가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빅." 하루하루가 마치 죽음의 강 언저리를 노니는 것처럼 긴장의 연속일 때면, 자기 이름도 잊혀지기 마련이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빅이다."

빅이라는 이름의 버리지가 집을 나서 뛰었다. 물론, 자력 자물쇠 여럿으로 문을 잠그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온 감각 기관으로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였다. 회색 매연이 머리 위부터 지평선까지 두텁게 덮여 있었다. 뒤틀린 우주선 선체와 강철 기둥, 버려진 쓰레기가 모여 이루어진 망자의 항구 위를 희미한 햇빛이 살금살금 기었다. 아, 즐거운 우리 집.

고물의 도시는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웅웅거리며 깨어났고, 그 소리는 영원한 부패에 갇혀 있을 뿐인 이 도시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듯한 허상을 입혔다. 어디에선가, 밀수업자들이

공업용 용액으로 자른 수백 킬로그램의 고깃덩이를 화물 상자에 채워 우주선에 실었다. 아마 투락시스 II 행성의 부유한 아이들에게 갈 예정일 것이다. 또 어디에선가, 자신들이 천국행 표를 샀다고 생각하는 피난민들이 우주선에서 내려, 그들을 반기는 노예상의 품에 안겼다.

항구의 또 다른 하루가 밝았다.

다른 버러지들도 부산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조직 두목에게 가야 할 상품을 운반하고, 도박장과 유곽에서 잡무를 처리하고, 우주공항에서 화물을 훔쳤다. 이들은 더러운 피부와 때 탄 의복 덕분에 암회색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 사람들은 빅과 같은 부류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거리의 망나니, 기생충, 거머리. 물론, 빅 자신도 그 이름에 동의했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인류의 발걸음에 짓밟힌 도시에 버려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짐승이 되어야 했다.

나는 빅이다. 나는 다르다.

그는 신중한 걸음으로 먼지투성이 거리를 누비며, 언제나 시선은 전방에 고정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는 행인을 흘끗 바라보자, 피부 아래 발그레한 홍조가 눈에 띄었다. 곧 공격을 시작할 것임을 경고하는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표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붉은 눈의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시체를 밟고 넘었다. 모습을 보니 죽은 지 며칠이 지난 것 같았다. 여기 뒷골목에서, 땅에 매장되는 사치를 누리는 자는 없다.

머지않아 이반의 작업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망자의 항구 고티머리에 탐처럼 높이 솟은, 베스핀 정제소를 보수하여 만든 시설이었다. 버러지는 달렸다. 위험천만한 지역을 다치지 않고 헤쳐 나왔다는 것이 기뻐다. 그 때, 누군가 길모퉁이에서 팔을 뻗어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주먹을 꽉 쥐고 방어할 준비를 하다가, 그는 상대가 다른 버러지임을 알아봤다. 그 부류의 모두와 마찬가지로 상대도 추레한 옷을 입고 있었고, 깨끗이 밀어버린 머리에는 벌레가 문 흔적이 눈에 띄었다. 위험해 보였지만, 빅의 유일한 친구였다.

"또 늦었어. 나도 잔소리를 듣는다고." 세르이가 손을 놓으며 말했다.

"집어치워." 상대를 올려다보는 빅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세르이는 컷다. 범죄단 두목처럼 옷을 잘 차려 입으면, 머리통 깨나 부술 듯한 거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머리도 좋았다. 이곳 항구에는 흔하지 않은 자질이였다. 이들 두 버러지는

거리에서 만나 둘 다 기계공학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수리 일을 하거나 이런저런 상품을 팔면서 항구를 떠날 우주선 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둘은 다른 버러지들처럼 두 다리로 걸을 뿐인 짐승이 되지 말고, 둘만의 방식으로 이곳을 떠나기로 맹세했다. 그러다가 이반이 둘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그들을 "고용"하고 팔에 통신기를 심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빅과 세르이는 때때로 도망칠까 생각도 해 봤지만, 돈이 없으면 갈 곳도 없었다.

"보여줘." 세르이는 빅의 가슴께를 가리켰다.

"오늘 갖고 있을래?" 빅은 날개 장식을 꺼내며 말했다. 세르이가 뒷골목의 시체에서 찾아낸 물건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준 유일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빅은 예전처럼 낙천적인 생각은 들지 않았다. 둘이 모은 돈을 적당히 불어날 때면, 언제나 강도질을 당하거나 식료품이 떨어져 모아둔 돈을 써야만 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겼다. 항구에서의 삶이란 언제나 사람을 겁질뿐인 존재로 만들었다. 기진맥진하게 했다. 꿈이 희미하게 바래게 했다.

"아냐. 갖고 있어. 아침에 그 말 했어?"

"당연하지. 넌?"

"내가 가르쳐 준 거잖아, 멍청아." 세르이가 빅의 어깨를 툭 밀었다. "그나저나," 덩치 큰 버러지는 비상 식량을 친구에게 던지며 말했다. "저 아래에서부터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빅은 어깨를 으쓱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마지막은 아니겠지?"

"먹어 치워." 세르이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빅은 그와 말다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다. 언제나 소용 없는 일이었으니까.

젤라틴 형태의 혼합물을 꿀꺽 삼키면서, 그는 친구의 눈 밑에 검은 그늘이 드리운 것을 눈치챘다. 매일매일 세르이는 조금씩 더 지쳐갔고, 빅은 자신의 뒤를 봐주는 것도 거기에 한 몫하고 있음을 알았다. 빅에게는 가족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버러지들은 다들 그랬다. 하지만 이곳에 "형"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세르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리 와." 세르이는 열린 가게 문을 향해 걸었다. "뭔가 큰 건이 들어왔어."

오늘은 또 어떤 종류의 기술을 맛볼 수 있을지 생각하니, 빅의 가슴이 뛰었다. 이반의 부하들은 소위 "집중적 해적질"을 통해 주로 밀수품을 취급하는 수송선을 약탈했다. 대부분 의약품이나 식품류였지만 종종 귀한 기계 장치를 물어오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때면 먼저 빅이 역설계를 통해 제품을 분석한 후, 빅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식이었다. 아, 그때가 좋았지.

"그래? 뭔데?" 빅이 물었다.

세르이가 핵 돌아섰다. 그 눈에 뭔가 담겨 있었다... 혐오... 불안... 공포.

빅의 본능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도망쳐.

"저그."

\*\*\*\*

빅도 저그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다들 그랬다. 몇 년 전, 저그는 테란의 우주 공간에 나타나 난장을 쳤다. 행성을 파괴하고 수백만의 식민지인을 학살했다. 심지어 당시 코프룰루 구역에서 가장 큰 정부였던 테란 연방 연합까지도 외계 생물의 침략에 휘말려 무너졌다. 저그는 악몽이었다. 모든 테란의 적이었다.

그는 저그가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했었다.

빅의 키 절반쯤 되는 세 마리 생물이 가게 중앙에 놓여 있었다. 마디로 나뉜 몸통은 두꺼운 가시투성이 껍질에 덮였고, 줄지어 달린 작은 다리가 몸통을 떠받치고 있었다. 외계 생물의 머리에서는 톱니 모양의 주둥이가 튀어 나왔고, 그 주위에는 생명이 사라져가는 듯 흐릿한 겹눈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총알 자국이 가득하고, 길이가 3 미터에 높이가 2 미터 정도인 신소재 강철 상자가 생물 근처에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에 붙은 얼음을 보니, 아마 일종의 냉동 장치나 극저온 저장 장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이반의 용병 중 한 명인 허친스가 저그 하나를 들어 올렸다. 힘이 꽤 들어가는지 근육이 긴장하며 빛나는 문신이 일그러졌다. 다른 용병들도 외계 생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탄띠와 칼, 강화된 수족, 찌그러진 방어구가 뭉뚱그려진 덩어리처럼 보였다.

버리지들은 외계 생물을 더 잘 보려고 화물 컨테이너의 탑 너머에 다시 둘러서 있었다. 작업장 중심부는 쿼퀴한 동굴 같은 공간으로 스산한 바닥 조명만이 주위를 밝혔다. 어둠에 잠긴 머리 위 서까래에서는 녹슨 엔진이 더 녹슨 사슬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이반에게 고용되었던 지난 1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빅은 상점의 설비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했다. 이곳은 그의 두 번째 집이요, 직접 만들어 낸 감옥이었다.

"이반 물건이야. 내려놔." 제이스의 걸걸한 목소리는 낮은 엔진이 내뿜는 마지막 트림 소리 같았다. 그 야수 같은 인간은 다른 작업자들 위로 거인처럼 솟아올라, 자신의 얼굴을 귀에서 다른 귀까지 가로지르는 일그러진 흉터를 뱉뱉 긁고 있었다.

"두목도 이걸 살 놈은 못 찾을걸." 허친스가 저그를 공중에서 흔들었다. 빅은 외계 생물이 별떡 일어나 그 남자를 반으로 잘라버리길 기대했지만, 그건 그냥 무력하게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실망스러웠다. "우린 생물체는 안 팔아. 이런 건 그냥 개밥일 뿐이라고. 재미라도 좀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벌써 재미 좀 봤잖아." 제이스는 냉동 상자에 무늬처럼 새겨진 총알 구멍을 장화로 걷어찼다.

허친스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야. 밀수꾼이 총을 쏘길래, 나도 상대해 준 것 뿐이라고. 녀석이 자기 화물을 엄폐물로 쓴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넌 이미 이반의 미움을 받고 있어." 제이스는 어깨를 으쓱였다.

상대 용병은 저그를 집어던졌고, 빅은 외계 생물이 강철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며 움찔했다. 허친스는 최근에 영입된 용병이었다. 지금까지도 몇몇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번 일은 완전히 달랐다. 두목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거다. 절대, 절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반은 지금 여기 없었다. 아마 개인 사무실에 틀어박혀 계약을 하고 잠재적 구매자의 냄새를 맡고 있겠지. 그래도 두목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는 건 기분이 언짢았다.

"가야겠어." 빅은 세르이에게 귓속말했다.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병들처럼 그도 외계 생물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빅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며 방을 둘러봤다. 작업장 중앙으로 통하는 문간의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다. 이반이... 보고 있었다. 커다란 네발 짐승이 두목 곁에서 조용히 어슬렁거렸다.

"남자답게 내기라도 하는 게 어때?" 허친스는 허리띠에서 권총을 꺼내 저그 하나를 겨눴다. "내 P220 이면 저 녀석 껍질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기 할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반이 조용히 손을 뻗어 그 용병을 가리키는 모습을 본 건 빅뿐이었다. 그의 곁에 있던 동물이 으르렁거리며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두목의 얼룩무늬 세일 개가 단숨에 달려들어 허친스를 쓰러뜨렸다.

"이 놈 좀 떼 줘요!" 개가 팔을 물고 당기자 용병이 울부짖었다. 허친스는 철분이 풍부한 섬유질로 구성된 마치 강철판 같은 개의 가죽을 주먹으로 두들겼지만, 그건 그 야수를 더 귀찮게만 할 뿐이었다.

이반은 특유의 검은 정장을 입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차분히 다가왔다. 단단히 무장한 용병들 곁에 있으니 유순해 보였지만, 그 눈만은 달랐다. 차가운 경계의 눈빛을 띤 얼음색 눈. 두목은 허친스와 개가 땅바닥에서 씨름하는 꼴을 내려다봤다.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용병이 소리쳤다.

"네가 한 짓 때문이 아냐. 네가 하려고 하던 짓 때문이지. 미친 개가 물지 않는다고 해서,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녀석이 피를 보는 건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거든."

"알았어요, 두목. 알았다고요! 좀 떼어내 줘요!"

이반이 손가락을 튕기자 개가 사냥감을 풀어줬다.

"이런 젠장, 두목." 허친스는 일어나면서 팔에 난 피투성이 이빨 자국을 살폈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거야, 임마." 이반은 땅에 떨어진 P220 을 주웠다. "네가 바보가 되는 걸 막아줬으니까."

"무슨 소리에요?"

"여기 저그는 무척 단단한 놈이거든. 애벌레라고 하는데, 전쟁 당시에는 가우스 소총으로 무장한 연방 해병들도 없애기 힘들어 했어. 네 P220 이라고?" 이반은 그 무기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상대도 안 되지."

두목이 권총을 서서히 저그 생물 하나에게 가져갔다. "총알은 그대로 튕겨 나왔을 거야. 이렇게." 그는 총으로 외계 생물을 건드린 후, 다시 빙 돌려 총구를 허친스에게 향했다. 그리고 P220 으로 용병의 가슴을 눌렀다. "그 후에는 여기로 향했겠지."

허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목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걸 좋아했다. 데리고 놀기를 좋아했다. 빅은 그가 진지한지, 아니면 농담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만 하는 도시에서, 이반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은 그를 공포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봐." 이반은 싱긋 웃으며 빈 손으로 용병의 어깨를 두들기며 긴장을 풀었다. "여기서 모리아까지 넌 우스갯소리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라고. 이 구역 전체의 용병들이 저그 애벌레가 널 어떻게 죽였는지 얘기하며 배꼽 빠지게 웃었을 거야."

허친스는 긴장한 듯 억지 웃음을 웃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다들 내가 그랬다고 할 거 아냐."

총성이 빅의 귀를 때렸다. 이반이 방아쇠를 당기자, 허친스의 가슴에 방어구를 관통하는 커다란 구멍이 났다. 죽은 용병이 형겅 인형처럼 뒤로 날아가 상자들에 처박혔다.



이반은 용병의 시체를 가리키며 혀를 찼다. 개가 달려들어 허친스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아, 애들아." 그가 말했다. "너희가 물건을 가져오면, 내가 파는 거야. 그 전까지는,  
아무도 장난을 치면 안 되고."

용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친스를 다시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왜 그러겠는가? 그들은  
살아남았다. 또 하루를 버텼다. 중요한 건 그것뿐이었다.

"구매자를 찾으셨습니까, 두목?" 제이스가 느긋하게 자신의 흉터를 긁었다.

이반은 냉동 상자를 주먹으로 두들겼다. "알고 보니 너희들이 댄친 밀수꾼이 브래너무어라는  
실험실 쥐새끼에게 이 물건을 가져가던 중이라더군. 그 정보를 알아내는 데만도 여기저기에서  
힘을 빌려야 했지만."

"개인 구매자인가요?" 제이스가 물었다.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반이 말했다. "밀수업자들이 물건을 배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니, 주머니가 꽤나 두둑한 모양이야. 아마 정부 기관이겠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모자일수도 있는데, 나같은 자치령에 걸겠어. 항상 이런 쓰레기 같은 일에는 깊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쪽이든 상관 없지만." 이반은 허친스의 시체로 모여드는 파리를 휘휘 쫓았다.  
"중요한 건, 중개인을 통해 이 브래너무어라는 곳에 연락을 했다는 거지. 모든 걸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하더군. 자치령 녀석이라면, UNN 에 자신이 살아 있는 저그를 밀거래한다는  
소식이 보도되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겠지. 그래도 이 강아지들을 정말 데려가고 싶은가 봐...  
어찌나 급한지 조수를 하나 보내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더라니까. 4 일 후야."

"얼마죠?" 제이스는 모든 용병의 마음 속에 떠올랐을 질문을 했다. 그들은 훔친 상품이  
암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나눠 받았다. 소중한 화물이라면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될  
터였다.

"늘 그렇지만, 거래를 마친 후에 알게 될 거다. 가서 일이나 해." 용병들은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러 흩어져 가고, 이반은 빅과 세르이에게 돌아섰다. "너희 둘, 구매자는 테란의 저 장난감  
상자가 거래 시점까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어. 물론 난 그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고."

실험실 쥐새끼는 냉동 상자가 고장났다는 건 모르겠지. 빅은 생각했다. 그도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다. 자신의 패는 보이지 마라. 구매자는 물건이 상자 안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그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외계 생물들을 외부에 보관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면...

"저그를 빈 개 우리에게 가둬." 이반은 말을 이었다. "상자를 고치는 동안 녀석들을 잘 보살피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니 누구라도 장난을 치면, 당장 내게 뛰어와라."

"네, 두목." 저그와 한 우리 안에 있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이 놈들은 살아있어야 해. 알겠어?"

세르이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저그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잘 알겠습니다, 두목."

빅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세일 개에게 시선을 돌렸다. 개의 줄지어 선 누런 이빨 틈에서 긴 혀가 빠져나와 허친스 곁에 고인 피를 핥았다. 이반이 돌아서며 휘파람을 불자, 개는 남은 먹거리를 버리고 슬그머니 주인의 곁으로 갔다.

착한 멍멍이군.

\*\*\*\*

개집은 작업장 뒤편의 긴 복도로, 유일한 입구는 시설 중앙으로 통하는 녹슨 문 뿐이었다. 이곳은 두목이 구매자를 찾아내지 못한 낡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테란 조항 전쟁 시절의 수류탄과 탄약, 보수자재, 의약품, 기타 공업 제품으로 가득찬 상자가 벽을 따라 줄을 지었고, 부서진 복수자 전투기와 수송선이 방 한쪽의 울타리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빅은 이들 우주선 모두에 한 번 이상 손을 대고,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다. 그는 기계를 좋아했다. 조작이 서툴거나, 외부의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계는 항상 의도한 결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생명체는... 다음에 무슨 짓을 할 지 알 수가 없었다.

빈 개 우리를 찾아낸 두 버러지는 냉동 상자와 저그를 그 안에 밀어 넣었다. 빅은 상자를 수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 일만 끝나면, 그 외계 생물들이 그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유가 생긴 세르이는 우리 창살에 느긋하게 기대 서서 원격 콘솔에 얼굴을 묻고

하이퍼넷에서 애벌레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숨겨진 군부의 설계도와 정부의 기밀 서류 등 연합 시절의 쓰레기들이 네트워크를 이리저리 떠돌았다. 세르이가 그렇듯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었다.

가까이에서 열 마리 성난 개들이 울부짖으며 우리를 물어뜯고 강철 몸통으로 철창을 들이받았다. 저그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빅은 한숨을 쉬고 우리를 광광 두들겼지만 개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코랄 IV 행성에서 태어난 이 동물들이, 전에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행성에 연합이 "파멸"급 핵폭탄을 퍼부어 3 천 5 백만명이 넘는 테란인을 산 채로 구워 버렸을 때, 이 개들 중 일부가 살아남아, 변형되고 오염된 채 화산재와 사막 유리로 덮인 황무지에 뿔뿔이 흩어졌다. 놈들은 돌연변이를 일으킨 소화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먹었다. 이들이 진짜 생존자였다. 멸종의 위기를 스쳐 지나며 강해진 몸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이반은 그 점을 마음에 들어 했다.

빅에게는 성가신 녀석들일 뿐이었다. 그는 개 짖는 소리를 무시하고 광열 조정 안경을 쓴 후, 상자 위로 몸을 구부려 손상 정도를 확인했다. 온도에 따른 파형이 넘실거리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서늘한 파란색 냉기가 여덟 개의 총알 구멍을 통해 상자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총알을 맞은 충격으로 냉각 장치의 외부 표면을 따라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 파괴도 일어난 상태였다.

상자는 겉보기에는 대단치 않았지만,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열초음파 엔진으로 작동하며 고 진폭 음파를 사용하여 열을 배출하고 저그의 온도를 빙점까지 끌어내렸다. 섬세한 감지기가 애벌레의 상태를 상자 위에 부착된 소형 화면 세 개로 전달했다. 그리고 전원장치 한 개가 기기 전체에 전원을 공급했다. 섬세한 물건이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상자의 원래 주인과 허친스의 충격전에서 살아남았다. 몇 군데 땀질을 해야겠지만, 그뿐이었다. 간단한 작업이다.

빅은 플라즈마 용접기를 켜고 일을 시작했다. 세르이의 콘솔에서 나는 소리가 가끔씩 들렸다.

*"... 애벌레는 군단의 중추이자 저그 부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생물학적 거대 기억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외계 생물 종족 전체의 DNA 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저그 변종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실험실 쥐새끼가 이걸 왜 그렇게 애타게 찾는지 알겠지?" 세르이는 빅의 다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그런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니... 꽤 비싸게 팔리겠어."

빅은 친구의 말에 호응하려고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세르이도 조만간 영상에 실증을 느끼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몇 시간 후, 세르이는 광열 조정 안경을 빅의 얼굴에서 치우고 콘솔을 들이밀었다. "이거 봐." 여러 개의 영상이 화면에 펼쳐졌다.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커다란 살점 덩어리로 변형되는 모습이었다. 고치가 폭발하듯 열리자, 빅이 UNN 에서 봤던 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뮤탈리스크. 처음 보는 끔찍한 괴수들도 있었다. 악몽의 생물들.

*"저그 대군주가 애벌레에게 사이오닉 명령을 내리면 변태가 시작된다." 지루한 목소리가 영상 위로 흘렀다. "변태기 상태의 지속 시간은 최종 유기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빅은 애벌레를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녀석들은 길고 뾰족한 몸통을 그를 향해 돌리고, 턱을 덜컹거리고 있었다. 막대기 같은 다리들이 바닥을 긁었다. 빅은 소름이 확 돋는 것을 느꼈다.

"난 그냥 커다란 민달팽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말야." 세르이가 말했다. "위험한 녀석들이네."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빅은 외계 생물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세르이는 콘솔을 애벌레를 향해 돌리며 그것들이 변신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글쎄, 어쩌면... 먼저 이걸 봐야 할 지도 몰라. 변신하는 방법을 모를 테니까."

"집어치워." 빅은 친구의 다리를 걷어찼다. "놈들이 변신하게 하고 싶어?"

세르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낭비 같아서 말야. 모르겠어... 이 녀석들은 이보다 더 나은 뭔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우릴 잡아먹겠지."

"어쩌면..." 세르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말을 줄였다. 그는 창살에 기대서 애벌레가 변이하는 영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했다.

\*\*\*\*

"실컷 먹으렴, 애들아." 세르이는 비상식량 두 통을 저그 앞에 쏟아냈다. 애벌레의 턱 사이로 진홍빛 촉수가 뻗어 나왔다. 이들은 유동식을 찢어 봤지만, 결국 먹지는 않았다.

"아까운 음식만 낭비했네." 빅이 투덜거렸다.

"먹어 봐. 그렇게 맛 없진 않아." 세르이가 저그에게 말했다.

찰칵, 소리에 빅은 움찔했다. 제이스와 두 명의 용병이 우리 끝에 서서 전화기로 외계 생물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거 참 아름다운 장면이네. 정말 아름다워." 제이스가 웃었다.

빅은 늘 그렇듯 그들을 무시했다. 내버려 두면 지루해 하다가 떠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먹이사슬의 맨 아래 단이 아님을 상기하고 싶을 뿐이다.

제이스가 삐걱 소리가 나게 우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무릎을 꿇고 거대한 손을 저그 쪽으로 뻗었다. "UNN 에서 그렇게 끔찍한 괴물들이라고 보도하던 게 너희냐..."

세르이가 제이스의 팔을 밀어 치웠다. 빅은 마음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돌아섰다. *바보 같으니.* 저 녀석이 뭐에 씌었나?

"이 녀석들이 제 모습을 찾으려면 너 정도는 그냥 찢어버릴 거야." 덩치 큰 버러지가 말했다. "애들이 다른 저그로 변신한다고."

"이야, 이거 우리 중에 과학자가 계셨네." 용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제이스는 웃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일어나 세르이를 내려다봤다. "이런 젠장, 너 지금 날 쳤냐?"

세르이는 응당 물러서야 했지만, 오히려 상대를 위협했다. "이반 두목이 너희가 이쪽에 볼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안 하던데."

둘은 누가 먼저 물러설지 재보기라도 하는 듯,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봤다.

"거래하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반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두목이 우리를 향해 당당히 걸어오자, 용병들도 꼬리를 내렸다.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제이스가 얼굴의 상처를 꼬집으며 말했다. "저그를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제 충분히 봤겠지?"

용병들은 군소리 없이 자리를 비켰다. 모두가 사라진 후, 이반이 말했다. "보고해."

"곧 됩니다." 세르이가 답했다.

"'곧 됩니다'?"

"곧 됩니다, 두목." 빅은 친구의 실수를 바로잡았다.

이반은 손등으로 덩치 작은 버러지의 따귀를 때렸다. 입가가 찢어질 듯 아팠다. 두목은 세르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날카로운 눈빛이 상대를 사로잡았다. 세르이의 근육이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다행히도 곧 어깨에서 힘이 빠지며 축 늘어졌다.

"곧 끝납니다, 두목님." 마침내 그가 말했다.

"'곧' 될 거였으면 어제 끝났어야지. 24 시간 남았다." 이반은 버러지 둘이 답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다.

"괜찮아?" 세르이는 빅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덕분에 괜찮지 않아." 그는 입술에 난 상처를 핏물을 핇았다. "너 뭐 한 거야?"

"그냥... 녀석들 개소리가 듣기 싫었어."

"나도 그래. 그래서 녀석들이 시비를 걸 이유를 주지 않는 거라고." 빅이 말했다. 둘은 용병들에게 대든 적이 없었다. 항상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 그게 생존의 비결이었다. 물에 물 탄 듯, 눈에 띄지 말아라. 복종하라. 그게 규칙이었다.

"알아. 그런데 이것들을 보니..." 세르이는 애벌레들을 가리켰다. "있잖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DNA 정보를 몸 안에 담고, 또 무엇이든 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아냐, 신경 쓰지 마."

세르이는 다시 창살에 기대 콘솔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작업을 시작하자, 빅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몇 시간 더 똑딱거리다 보니, 상자의 총알 구멍과 파괴된 부분을 신소재 강철 조각으로 모두 메울 수 있었다. 일이 풀려갔다. 하지만 망자의 항구에서는, 바로 그런 때 뭔가가 길모퉁이에서 기다리다가 당신을 때려 눕히곤 했다.

빅이 상자의 전원을 켜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욕을 뱉으며 다시 상자를 살펴본 후, 전원부에 앞서 보이지 않았던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P220 총탄의 파편이 장치의 심장을 뚫고 나간 것이다. 전원부 핵은 고칠 수 있겠지만, 적어도 1 주일은 걸릴 일이었다. 둘은 상점을

구석구석 뒤진 끝에, 구식 전원 공급장치 3 개를 찾아냈고, 이들을 냉동 상자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위험한 일이었다. 조금만 잘못 짚으면, 전지가 폭발하며 그의 손을 날려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반이 정한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았다.

"빅..." 세르이가 그날 밤 나직이 그를 불렀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

"반나절." 빅은 전원부에서 미세용접기를 거두고, 이마에서 땀과 얼룩을 닦아냈다. "거래 전까지는 시간이 충분할 거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세르이는 원격 콘솔을 회전시켜 빅에게 보여줬다. 끈적거리는 보라색 땅이 화면에 나타났다. 썩은 고기에 모인 구더기처럼, 애벌레가 그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애벌레가 생존하려면 저그 균락의 번식 기반인 점막이 필요하다. 점막에서 고립된 애벌레의 수명은 크게 감소한다. 이 경우의 예상 수명은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몇 시간이라고." 세르이가 말했다. "그래서 구매자가 저그를 저 상자 안에 담아 두라고 했던 거야."

이반의 개가 바닥의 피를 핥고 허친스의 살을 물어 뜯던 모습이 빅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미세용접기로 전원부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는 사이, 주위 세상이 멀어져 갔다. 그는 공포에 쫓겨 게슴츠레한 눈으로 밤새 일을 계속했다. 평생 가장 잘 된 작업이었다. 다음 날 정오에 그는 상자를 수리하고 전원을 켰다. 두 손도 멀쩡했다. 모든 화면에 초록불이 들어왔다. *잘 됐다.*

"우리가 해냈어, 세르이. 아니, *내가* 해냈지." 빅은 농담을 던졌다. 또 한 번 일을 마쳤다. 또 한 번 재앙을 피했다. 또 하루 살아남았다. 그는 애벌레를 향해 돌아서며, 승리에 겨워 주먹을 불끈 쳐들었다. 세르이는 몸을 숙이고 애벌레 중 하나를 살펴보고 있었다.

"죽었어." 친구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그만 다리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아."

\*\*\*\*

"그가 알 거야." 빅의 손에서 미세용접기가 덜덜 떨렸다. "알아낼 거라고."

둘은 애벌레를 상자에 넣고 죽은 녀석을 왼쪽에 담았다. 상자 위쪽의 상태 표시 장치는 상대적으로 조악했다. 각 화면은 아래의 표본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에 따라 초록색 또는 빨간색 불빛을

반짝일 뿐이었다. 조작하기는 쉬웠다. 이반이 그것을 믿을지가 문제였다. 두목은 자신의 상품을 무척 꼼꼼히 살피는 편이었다.

"잊어버려." 세르이는 개 우리 주위를 빙빙 돌았다. "상관없어."

"잊어버리라고?" 빅은 죽은 애벌레 위의 화면을 마지막으로 손뚱했다. 깜박이는 불빛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말하거나, 속이거나. 앞쪽은 추천하지 않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가져가도 돼. 우리가 파는 거지." 세르이는 친구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귓속말로 말했다. "생각해 봐. 항상 이 바위덩어리에서 떠나자고 얘기했었잖아? 이번이 기회야. 이 애벌레는 값어치가 엄청나다고. 그게 아니면 왜 구매자가 이 쓰레기더미까지 가지러 오겠어? 그 자식이 정말 정부의 실험실 쥐새끼라면,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아닌 한 이반 같은 녀석하고는 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건 이반 물건이야."

"흠쳤잖아.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 요새 왜 그래? 괜찮다가 어느날 갑자기 무슨..."

세르이는 차갑고 슬픈 소리로 웃었다. "내가 뭐? 개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이반의 발소리가 뒤에 들릴 때마다 덜덜 떨지 않는다고? 아침마다 우린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며 의식을 하잖아.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는 동물 같은 대접을 받고. 난 지쳤어... 그냥... 지쳤다고..."

"우린 그냥 숨을 죽이고 있는 거야. 기회를 엿보고 크레딧을 모으면서. 그게 우리 방식이잖아. 네가 그렇게 가르쳐 줬고."

"벌써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뭘 얼마나 모았어? 아무 것도 안 남았다고. 우리가 만약..."

"어이!" 이반이 소리쳤다. 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두목을 향해 돌아섰다. "보고해."

"방금 끝났습니다, 두목." 빅이 말했다. 이반을 보고 마음이 놓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두목의 모습을 보고 세르이가 뭔가 정신을 차려 주길 바랐다. "저그는 안에 있어요. 잘 닫혀 있습니다."

이반은 상자를 열고 살얼음으로 뒤덮이기 시작한 세 마리 애벌레를 훑어 봤다. 죽었든 살았든, 모두 똑같아 보였다. 덮개의 세 화면에서는 초록색 불빛이 반짝였다.



빅은 두목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숨을 쉬지 못했다. "좋아. 이제 가 봐."

빅은 말소리가 이반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진 후에야 입을 열었다. "가자. 미친 소린 집어치워."

"아냐." 세르이는 고집을 부렸다. "미친 건 지금 우리처럼 사는 거야. 우리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군말 없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잖아. 너무 오래 참았어. 자, 날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난... 너무 위험해. 그건-"

세르이는 빅의 강하복 안으로 손을 넣어 날개 장식을 끄집어 내고, 강하게 잡아당겨 고무줄을 끊었다. "이반의 개처럼 살아도 괜찮다면, 이건 뭐 하러 걸고 다니는 거야? 대충 그렇게 일하고 또 일하다 죽겠지. 그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걸. 항구의 버러지로 태어나면, 항구의 버러지로 죽는 거니까."

그만. 이제 지켜왔다. 감정에 사로잡혀, 빅은 세르이에게 달려들었다. 친구는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그를 철창으로 집어 던졌다.

"뛰어. 집에 가." 세르이는 날개 장식을 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다. "착한 강아지처럼 이반의 전화를 기다려."

빅은 그렇게 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분노가 조금씩 쌓였다. 세르이...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자살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러라지. 대체 저그를 어떻게 상점 밖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구매자를 어디서 찾아낼 거야?

자신의 집, 그 우주선 잔해에 도착했을 때, 빅의 눈은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게 우주선에 들어선 후에야 울음이 터졌다. 눈물을 흘릴수록 더 화가 났다. 그는 렌치를 들고 낡은 콘솔에 다가갔다. 세르이와 그는 그 콘솔에서 몇 시간 동안 질리지도 않고 조종사 흉내를 내곤 했다. 이국적인 밀림 위를 비행하는 상상을 하며 항구를 떠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콘솔이 뭉개지고 박살난 후, 그는 먼지 쌓인 조종석 덮개를 깨버리고, 지지분한 조종석 위에 웅크리고 누웠다. 그는 낡은 고무 쿠션을 꼭 붙잡고 축축한 섬유에 얼굴을 묻었다. 가장 힘든 것은 세르이의 말이 맞다는 점이었다. 빅은 위험이 느껴지자 그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 매 맞는 개처럼 집으로 달렸다. *항구의 버러지로 태어나면, 항구의 버러지로 죽는 거니까.*

\*\*\*\*

가지 마. 무시해. 기다려.

밤이었다. 이반의 통신기가 빅의 손목에서 울어댔다.

가지 마.

하지만 그는 갔다.

빅은 작업장에 들어서며, 껍질이 벗겨진 세르이의 시체가 사슬에 묶여 있을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작업장 중앙에서는 몇몇 용병들이 화물 상자를 이리저리 옮겼고, 제이스는 UNN 방송을 보고 있었다. 다른 자들은 모두 탁자에 둘러앉아, 카드를 치고, 시가를 피우고, 스카티 볼저 올드 8 번을 한 잔 한 잔 들이켜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모두 돌아서서 빅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이반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그를 뒷방으로 데려갔다. 머리 위에 전등 몇 개만 켜져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빅이 남겨뒀던 자리에 그대로 놓인 냉장 상자가 보였다.

아마 세르이가 멍청한 계획을 중단한 모양이다. 어쩌면 정신을 차리고 뒷골목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며, 자신을 사로잡았던 자살과도 같았던 꿈을 떨쳐낸 모양이다. 아니면 어디선가 그냥 지쳐서 쓰러졌는지도 모른다.

"이 저그는 꽤 값이 나가. 알고 있냐?" 이반이 물었다.

이반의 게임에 말려들까 두려워, 빅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목."

이반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크레딧 한 줌을 꼬집어냈다. 그가 무게를 재어보는 동안, 동전들이 손 안에서 짤랑거렸다. "밖의 아이들도 한 몫 챙길 수 있을 거야.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네 몫도 좀 나눠줘야 할 것 같더군."

빅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굵주린 시선이 동전에 꽂혔고,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세르이... 바보야. 우린 숨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자금을 모으는 거야. 그게 규칙이라고.*

"내게 충성하면 항상 보상을 받는 거야." 이반은 다른 팔을 빅의 어깨에 두르고, 그를 중앙 우리 쪽으로 돌려 세웠다.

"저기 보이냐?" 두목은 턱으로 개들을 가리켰다. 짓지 않고 있었다. 이반이 근처에 있을 때는 항상 그랬다. 빅은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림자를 쳐다봤다.

"사람들이 왜 개들을 키우냐고 묻더라. 내가 무슨 동물 애호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게 아냐. 저 애들이 모두 충성스럽기 때문이지. 그게 다야. 그게 우리가 저그 같은 동물들과 다른 점이기도 하고."

빅은 돌아다니는 개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뭔가 끈적하고 축축한 것을 밟는 소리.

"내가 견딜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내게 반항하는 거야. 너도 알고 있겠지."

이반이 우리 문을 활짝 열고 빅을 밀어 넣었다. 어둠에 눈이 익어가는 동안, 항구의 버러지는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개들은 빛나고 있었다. 아니 뭔가에 젖어 반짝였다. 주위 모든 것이 그랬다.

"어젯밤 다른 버러지가 저그를 훔쳐내려고 했다. 내 상품을 말이야. 멀리 가진 못했지. 혼자 했다고 주장하던데? 넌 아무것도 몰랐다고."

피. 피가 땅을 뒤덮었다. 개들의 온 몸을 적셨다. 개 한 마리가 커다란 뼈를 갉아 먹고 있었다. 사람 뼈. 그 끔찍한 광경이 이해되기 시작하자, 빅은 뒤로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이반이 그의 목덜미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무릎이 바닥에 떨어지고, 손이 앞으로 미끄러졌다. 피가 손가락 사이에서 찰랑거렸다.

그리고 거기, 그의 눈 앞, 찢어진 섬유와 연골 더미 위에는 물어뜯긴 날개 장식이 놓여 있었다.

"넌 몰랐겠지. 안 그래?" 이반이 말을 이었다.

"전 두목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빅이 소리쳤다.

"그렇지도. 하지만 진짜로 어떤지 알 수 없는 이상 제대로 대접해 줄 수는 없지 않겠어?" 이반은 동전들을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빅의 귀에 속삭였다. 뜨거운 숨결에 담배 냄새와 위스키 냄새가 실려왔다. "다음에 누가 날 거역한다는 얘길 들으면, 나한테 보고해."

이반이 마지막으로 그를 밀었고, 빅은 피웅덩이에 얼굴을 처박고 엎어졌다.

"우리 청소를 하고 꺼져. 다음 화물이 도착하면 부를 테니까." 빅의 뒤로 우리 문이 광하고 닫혔다. 두목의 장화가 덜컥 덜컥 금속성 소리를 내며 서서히 멀어졌다.

버러지는 손으로 날개 장식을 감싸고, 눈을 감아 주위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러나 피는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렸다. 커다랗고 시리도록 붉은 파도가 그의 마음에 밀어닥쳤다. 그 모습은 그의 두뇌에 각인되었고, 공포에 쫓겨 다시 살아났다. 맹인이라도 된 듯, 그는 우리를 떠나려고 발버둥쳤다. 미끄러운 붉은 바닥에 손과 발이 마구 미끄러졌다. 미지근하고 쇠 맛이 나는 공기가 그의 혀에 들러붙었다. 그는 토하고 몸을 떨었다. 머리를 창살에 부딪혀가며 이리저리 더듬다가, 마침내 문을 발견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버러지는 땅으로 무너져 내린 채, 기진맥진하여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졌다.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마치 정신적 외상의 충격파를 막아내기 위한 애처로운 노력 끝에 외부 세계에서 자신을 격리한 것 같았다. 빅은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장을 바라봤다.

서서히,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어떤 정신의 단층선이 끊어졌다. 꿈꾸는 자, 친구, 테란이었던 빅은 아직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피의 웅덩이로 가라앉았다. 남은 것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억누르려고 했던 괴물뿐이었다. 자신의 눈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관찰자. 원래의 자신은 결코 건드리려 하지 않았을 어둠과 원시적 감정의 지배를 받는 자. 아침마다 행했던 의식은 잊혀졌다. 수동적인 생존 방법이 그 빛을 잃었다. 굶주린 버러지는 무언가 그 이상을 갈구했다.

손바닥이 고통으로 타올랐다. 손을 펴보니 물어뜯긴 조종사 날개 장식에 찢린 곳에 피가 새로이 맺혀 있었다. 손금을 따라 붉은 선이 흘러 내렸다. 그 진홍빛 액체 안에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중나선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이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그가 접해본 모든 악당의 것과 같은 피였다. 그들은 그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빅은 어깨 너머로 냉동 상자를 살폈다. 애벌레도 마찬가지로였다. 그것들은 더욱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모든 힘... 그 잠재력이 단단한 껍질 아래 잠자고 있었다. 그게 세르이를 망가뜨린 것이다.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세계를 보는 그의 시선이 거꾸로 뒤집힌 거다. "항구의 버러지로 태어나면, 항구의 버러지로 죽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애벌레에겐 변화의 열쇠가 없었다. 빅에게 찾아온 그것이 없었다. 이반이 빅에게 준 그것.

버러지는 상처에 입술을 대고 그 달콤한 맛을 음미했다. 멀리 작업장 중앙에서, 다가오는 월급날을 축하하는 웃음 소리와 포커 칩 소리가 들렸다. 빅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보수자재와 녹슨 차량, 화물 상자를 둘러봤다. 한때는 이곳이 감옥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의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도구가 가득한 놀이터였다. 그만의 강철 밀림이었다.

\*\*\*\*

09:00 정각, 이반과 선원들이 뒷방으로 저벅저벅 들어섰다. 빅은 서까래 위에서 이들을 지켜봤다.

"월급날이다!" 제이스가 소리쳤다.

"애들아, 구매자가 30 분이면 여기 올 거야." 이반은 다른 용병들과 함께 개 우리에 다가가며 말했다. "상자를 싣고 다 같이 나갈 거다. 그리고 거래를 하고, 돌아와 수익을 나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이 일만 깨끗하게 처리하면, 우린-"

"두목!" 제이스가 우리 앞에서 멈춰섰다. 냉동 상자의 뚜껑이 열린 채였다. 가까이에는 사슬 창살을 뭔가가 뚫고 지나간 듯,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저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른 용병이 소리쳤다.

"놈들은 문을 열지 못해." 이반이 으르렁거렸다. "제이스?"

"말씀하신대로 순찰을 돌았습니다, 두목. 어떤 놈도 저그를 갖고 도망칠 수 없었어요."

빅도 제이스가 주기적으로 방을 살펴보는 것을 봤었다. 항구의 버러지는 밤새 일하면서, 그 용병이 순찰을 나올 때마다 어둠 속으로 숨었다.

이반의 눈이 방을 훑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다. 저 상자를 모두 열어!"

모두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좁은 방을 살살이 뒤졌다. 개들은 평소보다 더 크게 울부짖었다. 그 턱으로 침이 거품을 내며 흘렀다. 공포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저기 하나 있습니다, 두목!" 제이스는 투실투실한 손을 뻗어 상자가 쌓인 위쪽을 가리켰다. 애벌레의 빠죽빠죽한 겹질이 빠져나와 있었다. 빅이 놓아둔 바로 그 곳에. 덩치 큰 용병은 상자 위로 기어 올라가 외계 생물을 내렸다. 애벌레는 공처럼 둥글게 말려 공업용 접착제로 붙어 있었다. 죽은 애벌레라도 쓸모가 있어서, 빅은 기분이 좋았다.

"기어 올라간 모양입니다." 제이스는 외계 생물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둥글게 말려 있어요."

"당장 풀어서 상자에 넣어!" 이반이 명령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아."

"자, 꼬마야." 제이스는 거대한 손으로 애벌레의 양 끝을 붙잡았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 없어."

빅은 광열 조정 안경을 내려쓰고 빛과 열기를 억제하도록 설정했다. *공연 시작.*

제이스가 힘껏 애벌레의 양 끝을 당겨 퍼자 빅이 그 배에 묶어두었던 수류탄들이 격발되었다. 폭발에 휘말린 용병의 두 다리는 양쪽 방향으로 로켓처럼 날아갔고, 몸의 나머지 부분은 생체 기계학적 조각으로 흩어져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빅은 시설의 전기 설비에 부착한 간이 통제 장치의 스위치 몇 개를 켰다. 첫 번째는 작업장의 전원부를 과부하시켜 바닥등을 죽였다. 보조 발전기가 가동하며, 방 전체가 비상등의 붉은 빛으로 가득찼다.

두 번째는 반대쪽 벽에 쌓여 있던 상자들에 그가 흩어 놓은 수류탄들을 원격으로 폭발시켰다. 불꽃이 방안 가득 피어났다. 천둥이 온 벽을 뒤흔들었다. 녹아내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이반의 줄개들을 베어버렸다.

"*저그다!*" 누군가 소리쳤다.

용병들은 흩어져 여기저기로 숨었다. *탕! 탕! 탕!* 모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권총과 산탄총, 돌격 소총을 탄창이 빌 때까지 난사했다.

빅이 마지막 스위치를 올렸다. 개들을 가둔 우리 밖 여기저기에서 소이 폭탄이 폭발했다. 창살이 끈적하게 녹아내렸다. 겁에 질린 동물들이 우리에서 쏟아져 나와, 앞을 가로막는 자 아무에게나 달려들었다. 절대적인 혼란이 찾아왔다.

버러지는 정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텅 빈 차량 격납고로 들어섰다. 자기 부상식 운반기 위에 남은 두 마리 애벌레를 실어둔 곳이었다. 운반기를 밀면서 그는 학살의 장을 비집고 나갔다. 광열 조정 안경을 통해 초자연적인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방 한 쪽을 따라 달리며, 용병과 개떼를 운반기로 막았다. 무수한 유탄이 애벌레의 껍질에 맞았지만, 모두 튕겨져 전투의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빅은 그곳을 빠져나갔다. 안경을 집어 던지고, 진짜 망자의 항구를 향해 운반기를 밀었다. 그는 우주공항을 향해 최단거리를 주파했다. 하지만, 탈출하던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전투 중간에 이반이 사라졌던 것이 떠올랐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게 욕을 해야 했다. 두목이 사라진 이상 조심해야 한다.

그의 뒤에서 엔진이 으르렁거렸다. 바퀴가 흙 바닥을 잡아뜯었다. 빅은 어깨 너머로 두목이 4륜 구동의 강철 괴수를 몰고 그를 향해 돌진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버러지는 익숙한 뒷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퉁이를 몇 번 돌아간 후 그는 두목의 공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 엔진 소리는 골목길을 따라 계속해서 들려왔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른 항구의 버러지들이 버러진 함선의 고철로 열기설기 만든 간이 주거지에서 고개를 내밀고 무슨 일인지 확인했다. 빅은 이들을 무시하며, 이를 악물고 운반기를 밀고 도로로 나섰다.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사이에 근처 모퉁이에서 이반의 차가 달려나왔다.

모든 일은 단 한 순간에 일어났다. 빅이 한 걸음 물러나는 사이 차량이 운반기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애벌레 하나가 산산이 조각나고, 다른 하나는 버러지와 함께 하늘을 날았다. 빅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된 채 땅에 떨어져 굴렀지만 목숨은 부지했다.

그 소란을 보고 버러지들이 더 모여들었다. 그들은 거미줄처럼 뻗은 도로에서 이리저리 뛰었다. 버러진 함선 선체와 삐죽삐죽 솟은 강철의 등지 위로 부지런히 기어올랐다. 검댕이 묻은 얼굴에서 빛나는 야생의 눈 수십 개가 도로를 주시했다. 참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보러 온 것이다. 싸움은 죽음을 의미했고, 죽음은 흠쳐갈 것을 남겼다.

이반은 차에서 나왔다. 쇠기총을 손에 쥐고 있었다. 죽은 애벌레 조각을 손에 들고 잠시 지켜보던 그는, 비명을 지르며 유해를 길 건너편으로 던졌다. 빅이 본 이래로 두목이 이렇게 강한 감정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두목의 가면을 깨뜨려버렸다는 것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어젯밤에 했던 얘기 중에서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 이반이 물었다. "넌 뺏속까지 쓰레기야. 이 거머리들과 똑 같은 짐승이라고!" 구경하는 버러지들을 향해 총을 휘두르며 그가 소리쳤다.

빅에게서 1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남은 애벌레가 다리로 흙 바닥을 마구 긁었다. 그는 외계 생물을 잡아당겨 방패로 삼으며, 가까스로 두 발로 일어섰다.

이반은 쇠기총을 그에게 겨누며 성큼성큼 다가왔고, 가까이 접근한 후 총을 거뒀다. "아냐. 그 녀석처럼 네 머리도 박살내 주마.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은 울더구나. 개처럼 킁킁거리면서. 남자답게 죽을 줄도 몰랐었지."

킬킬대는 두목의 웃음 소리는 거친 기침 소리로 이어지고, 뒤이어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빅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적을 조심스레 살펴보자, 복부에 붉은색 자국이 눈에 띄었다. 검은 상의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전투 중에 유탄에 맞았구나...*

빅의 아드레날린 분비선이 다시 에피네프린을 내뿜기 시작했다.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상처입은 동물에 집중하는 그의 시야가 다시 단검처럼 날카로워졌다. 몸 속의 피가 울부짖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입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버러지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현된 생존 본능의 상징이었고, 테란의 역사를 통틀어 자연 도태를 통해 갈고 닦아진 유전적 형질의 소유자였다.

"이번 기회에 일깨워 주지." 이반은 빅의 강하복을 붙잡고 다른 버러지들에게 말했다. "내 상품을 건드리면-"

빅은 이반의 손을 깨물어 살점을 뜯어냈다. 그리고 애벌레를 앞으로 내밀고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두목이 쏜 총알이 빗나가고, 저그의 뾰족한 껍질이 그의 양복과 살, 뼈까지 꿰뚫었다.

빅은 이반을 땅에 내리꽂고, 애벌레로 거듭 내리쳤다. 단단한 껍질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상대의 뼈를 부셨다. 빅의 몸 속에 흐르는 피가 울부짖으며 더 공격하라고 외쳤고, 그는 두목이 희멀건 곤죽이 될 때까지 자신의 욕망에 응했다. 얼마 후, 버러지는 애벌레를 머리 위로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가 새로운 거죽처럼 그를 뒤덮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부류에게는 그 어떤 위협이나 칭호, 돈보다도 자신의 우월함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구경꾼들은 대부분 그와 거리를 뒀다. 일부는 동물이 절하는 모습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 땅에 떨어진 이반의 총을 향해 달렸다. 새로운 승자를 제압하고 자기가 정상에 오를 생각이었다.

인간 같지 않은 울음소리를 뱉으며 빅은 도전자의 가슴을 걷어찼다. 그 버러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흙 바닥으로 굴렀다. 그는 패배자답게 눈을 내리깔고 느릿느릿 기어 도망쳤다. 모두들 그랬다. 버러지들 중 누구 하나도 그와 시선을 맞출 용기가 있는 자는 없었다. 모두 겁을 집어 먹었다. 모두 그의 노예였다.

"이반의 작업장이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 선착순이야!" 그는 소리쳤다.

다른 버러지들이 환호하며 더러운 주먹을 하늘로 쳐들었다. 그리고 작업장 쪽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빅도 그들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손에 커다란 보물을 들고 있었다. 애벌레의 다리가 맹렬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이 승리를 이해했는지, 자신과 함께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알고 있을지, 빅은 갑자기 궁금해졌다.

\*\*\*\*

빅은 이 도시의 우주공항으로 사용되는 먼지가 날리는 착륙장에서 이반의 차를 급정거시켰고, 더러운 윗옷과 바지를 입은 채로 차량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강하복을 벗고 그걸로 애벌레를 감쌌다. 옷으로 외계 생물을 잘 가리자, 빅은 쓸모 없는 고철을 힘겹게 운반하고 있는 평범한 버러지처럼 보였다.

그는 하마터면 구매자의 우주선을 알아보지 못할 뻔 했다. 그 실험실 쥐새끼는 꽤 영리했다. 무척 낯고 평범한 우주선이 이곳에 잘 어울렸다. 깨끗하게 면도하고 말쑥한 검은색 강하복을 입은 채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뚱뚱한 남자가 아니었다면, 무심히 지나쳤을 것이다. 그 자가 이반이 말했던 브래너무어의 조수였다. 아마 용병 같은 모습의 무장한 경비원이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면, 꽤나 귀찮은 일을 겪었을 것이다.

빅이 우주선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갈 때, 끔찍한 피로가 그를 덮쳤다. 지난 24 시간 동안 그의 몸에 생겨난 모든 멍과 상처가 견딜 수 없이 아파왔다. 고무처럼 흐물거리는 팔에 들린 애벌레가 마치 500 킬로그램은 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대충 싸맨 저그를 이리저리 옮겨 드는 동안, 날개 장식이 강하복의 접힌 부분에서 떨어져 나왔다. 버러지는 날개를 쳐다봤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알아봤다. 그의 마음을 가렸던 원시의 안개가 흩어졌다. 무의식 아래에 갇혀 있던 예전 그의 조각들이 꿈틀거렸다. 그는 생존에 방해가 되는 그 연약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시 억누르려고 애썼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린 동물이 아냐." 그는 세르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닥쳐..." 빅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불청객의 목소리를 없애버리려고 날개 장식을 짓밟았다. 내면에서 그의 다른 쪽 절반이 사고의 표면을 향해 기어 올라왔다. 기억과 책임감, 죄책감으로 무장한 채.

"이 바위덩어리에서 떠난 후에는, 사람들과 어울릴 거야. 진짜 테란이 될 거라고."

빅은 비틀거렸다. 지난날의 기억이 자기 부상 열차처럼 그를 때렸다. 제이스의 몸이 조각나고, 개들이 겁에 질린 용병들의 목을 물어뜯고, 이반의 유해가 길거리에 질퍽하게 흩어지던 일.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었다. 그건 빅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였다. 다른 무엇인가였다.

"빅..." 버러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난 빅이야."

구매자는 넋더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피로 얼룩진 강하복 아래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눈치였다. 그 남자의 눈, 차갑고 계산적인 그 눈을 보니 이반의 눈이 떠올랐다. 버러지는 애벌레를 보호하듯 끌어안으며, 흰 실험실 가운을 입은 감정 없는 인간들이 외계 생물을 기이한 장비로 쿡쿡 찌러대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유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었다. 다른 생명 하나만 희생하면 될 일이다. 그것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외계 생명체 하나. 단 하나의 희생을 발판으로, 피로 쌓아 올린 이 길이 끝난다...

"우린 둘 다 잊어버렸어..." 빅은 땅에서 날개를 주워 들고, 구매자를 뒤로 한 채 돌아섰다. "둘 다 망쳐 버렸다고. 내가 계속 남아서... 그런 짓은 하지 않게 설득했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우주공항의 가장자리에서 기진맥진한 채 주저 앉았다. 몇 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 앉아 우주선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마침내 브래너머 연구소의 우주선도 빈손으로 날아 올랐다.

애벌레는 그날 밤에 죽었다. 작은 다리가 움직임을 멈추고, 몸통은 뻗뻗해졌다. 빅은 땅에 구멍을 파고 그 외계 생물을 내려놓았다. 그는 무덤을 내려다보며 서서, 저그에 대한 UNN 의 온갖 영상들을 떠올렸다. 타른 테란은 누구나 이 애벌레를 괴물이라고 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

작은 생물은 아직 괴물이 되지 않은 존재였다. 저그는 살인 기계가 되기 전에 모습을 바꾸기라도 하지만, 빅의 동족은 그러지도 않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손질한 정상인의 가면 뒤에 숨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어쩌면 그의 동족이, 무력한 식민지를 짓밟으려고 질주하는 피에 굶주린 외계 생물 떼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무덤에 흙을 던져 넣는 동안, 딱딱한 멍울이 빅의 목을 가득 메웠다. 공포에 휩싸이고 감정적으로 격리되었던 탓에, 그는 세르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 반쯤 묻힌 저그 애벌레를 내려다 보니, 잠자고 있던 감정이 눈을 떴다. 죽은 생물체를 보고 진심으로 슬픔을 느끼기는 처음이었다. 진짜 인간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깨달은 것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빅은 이반의 차를 밀수업자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들의 소형 우주선에서 화물칸 한 자리를 차지했다. 빅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묻지 않았다. 등에 짊어진 옷가지와 주머니에 넣은 세르이의 날개를 제외하면, 그는 모든 것을 남겨 두었다. 우주선의 탑승로를 오른 사람은 빅 혼자였다. 꿈꾸는 자, 친구, 테란인 빅 하나뿐이었다.